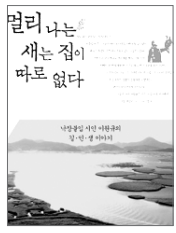


전국을 떠돌며 만난 향기 가득한 사람들



'멀리 나는 새는 집이 따로 없다' 이원규 지음



'이제부터 나는, 나의 애마' 이원규 지음

지리산 자락에 스며들어 세상과 등지고 살면서도 시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던 이원규(49·지리산학교 대표교사·시인) 시인이 3년 만에 산문집 '멀리 나는 새는 집이 따로 없다'를 출간했다. 시인은 스스로를 철새에 비유하며 "철새는 따로 집이 없다. 날마다 도착하는 그 모든 곳이 바로 집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번 산문집은 그가 자신의 애마인 모터사이클을 타고 지리산은 물론 전국의 이 골짜기 들을 누비며 만난 사람과 자연 이야기를 '아름다운 사람들' 등 네 갈래로 나눠 엮은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나의 애마 모터사이클을 타고 사람의 향기 물씬 풍기는 전국의 장터와 마을들을 장물뱅이처럼 떠돌 것이다. 그리고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 모든 것들을 도반이자 스승으로 삼을 것이다. 낮은 자리, 낮은 자리에서도 정직한 희망, 진정한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 그리하여 마침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모든 생명들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프롤로그 중)

이 같은 마음으로 시작해인지 시인이 전하는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웅골차고 가슴 시리다. 돼지국밥을 고작 2000원에 팔면서도 이마저 비싼 게 아닌가 미안해 하는 벌교장터 김해금 할머니. 정작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은 당신인데 오히려 수척한 볼골의 시인을 걱정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늘 자식을 염려하는 모든 부모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웃칠공예가 성공명씨의 이야기도 절절하다. 그는 어린 나이에 많은 부를 얻었지만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죽으려고 지리산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죽으러 들어왔던 지리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밖에도 건강이 나빠져서 키우던 소를 다 처분한 뒤 빈 의양간이 눈에 밟혀 지푸라기로 소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짚풀공예가 신남균 할아버지, 뇌출혈을 딛고 일어나 일흔 넷 늦은 나이에 화가의 길로 들어선 한숙자 할머니, 한국인 아빠와 필리핀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열네 살 소녀 트로트 신동 강인나, 사재를 털어 철새들의 먹이를 나눠주고 산란터를 만들기도 하는 서산의 수의사 김신환 원장 등 길에서 만난 향기 가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산문집은 4대강 공사로 평을 가득한 대한민국을 향한 안타까움과 현 정권에 대한 쓴소리도 아까지 않았다. 또한 아홉 편의 자작시를 본문 곳곳에 실어 지리산의 너른 풍속에서 얻은 여유를 함께 담았다. 결국, 시인이 길에서 깨친 것은 사람과 생명에 대한 경의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제 그는 사람이 살기 위해 먼저 자연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함께하지 않으면 언젠가 생명의 땅은 죽음을 땅이 될 것임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세상과 떨어져 고독하게 살아온 시인이 다시 속세와 소통하며 전하는 질박하면서도 흥내를 물씬 풍기는 이야기는 진한 감동으로 다가선다.



한편 지리산 지킴이를 자처하며 순천대 문예창작학과 지리산학과 등에서 시를 가르치고 있는 이씨는 광주일보 칼럼 '월요광장'의 필진으로 활동했다. <오픈하우스·1만3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시대 문헌 속 옛 부부의 은은한 사랑

'부부' 이종묵 지음



옛으며 '남녀상열'은 음탕한 풍속으로 간주됐다. 책에는 부부유별과 효, 아내의 도리와 내조, 사랑과 정, 갈등과 화해, 이별과 그리움 등 조선시대 부부의 삶이 만남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정리돼 있다. 책은 또 옛 사람들의 다양한 러브 스토리를 인용하고 있어 오늘날의 그것과 비교해가며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유교 이념이 근간이었던 시대를 다루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남성중심적인 시각과 이젠 과거해야 할 불건전한 관념의 이야기도 담겨 있지만 찬찬히 곱씹어 보면 현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부의 도(道)'를 읽어 내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문학동네·1만3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에나 지금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절실하면서도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부부의 문제이다. 우리 옛 시와 글을 읽고 그 아름다움을 분석해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이종묵 서울대 교수가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가'와 '부부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주제를 진지하게 성찰한 인문학 연구서 '부부'를 출간했다. 저자는 유교 이념이 지배하던 조선시대의 각종 문헌과 문학작품을 바탕으로 옛 사람들의 부부관과 부부생활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현대와 연결하려 한다. 물론 조선시대 결혼생활에 대한 관념과 제도는 오늘날과 달랐다. 혼인은 개인이 아닌 가족과 국가의 대사

철학자 30인의 알려지지 않은 철학 이야기

'위대한 철학자들은...' 강성률 지음



자기 발발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철학자 탈레스, 악처가 세계 4대 성인 만든 소크라테스,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설파한 원효, 자살 사건과 실연의 아픔을 견뎌 스피노자 등 흥미로운 내용이 많다. 강성률 교수는 한국교총 교원복지향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통령상과 교과부장관상 등을 받았다. 또 한국해결학회, 범한철학회, 동서철학회 등에서 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칸트 철학 국내의 권위자다. 저서로는 '2500년간의 고독과 자유' '청소년을 위한 서양철학사' 등이 있다. <평단문화사·1만3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교육대 윤리교육과 강성률 교수가 세상을 바꾼 철학자 30인의 알려지지 않은 철학 이야기를 담은 '위대한 철학자들은 철학적으로 살았을까'를 펴냈다. 책은 세계철학사를 대표하는 철학자 가운데에서도 널리 알려진 중요 철학자 30명을 선별하여 시대 순으로 소개하고 있다. 위대한 철학자들의 삶과 사상을 만날 수 있고, 세계 철학사의 흐름도 이해할 수 있다. 또 철학자의 사상보다는 삶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삶 역시 광범한 인간과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나아가 그들의 삶과 철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공예들

'쿠키클레이&냅킨...' 양명숙 지음



양명숙 한국창작문화예술연합회장이 일상 속 재료를 활용한 생활공예 안내서 '쿠키클레이&냅킨 데쿠파'를 펴냈다. 책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쿠키클레이' '냅킨데쿠파' '양공예' 등 3장으로 나눠 누구나 손쉽게 익히고 즐길 수 있도록 생활공예를 소개한다. 용어설명과 제작도구, 재료, 연간 교육과정을 소개해 교사들의 교재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쿠키클레이는 우리밀 가루에 천연

색소를 넣어 색을 만든 후 여러 가지 캐릭터를 만들어 오븐에 구워내는 수업이다. 냇킨데쿠파는 냇킨에 그려진 그림을 이용해 꾸미는 창작미술 공예다. 양 회장은 한국칼라점토연합회 회장, 양명숙칼라점토연구실 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며, '칼라믹스 일러스트' '칼라점토 일러스트 기초·심화' '냅킨아트 일러스트' 등의 책을 펴냈다. <한국창작문화예술연합회·2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멸종 위기 시베리아호랑이 삶 담아

'시베리아의 위대한...' 박수용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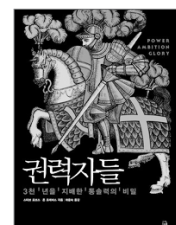


멸종 위기에 처한 시베리아호랑이의 삶과 죽음을 생생하게 담아 큰 감동을 선사한 EBS 다큐멘터리 '시베리아호랑이-3대의 죽음'의 제작 과정을 책으로 엮은 '시베리아의 위대한 영혼'이 출간됐다. 저자 박수용 PD의 집념과 도전정신, 끈질긴 열정으로 탄생한 이 다큐멘터리는 프랑스 웰 베른 영화제 관객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제영화제 특별상 'AMBA'를 수상했으며, 2010년 러시아 푸틴 총리 주위 '세계

호랑이 보호를 위한 정상 회담' 개막작으로 상영되기도 했다. 10만km의 대장정, 20년의 추적과 잠복,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오지에서 고독과 싸우며 '블라디 메리'로 이름 붙여진 호랑이 가족 3대를 촬영해가는 과정을 담당 PD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다.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담아낸 사진 등 방대한 자료는 압도적이며, 시베리아호랑이를 향한 제작진의 깊은 애정을 읽을 수 있다. <김영사·1만6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고대 권력자 6인을 통해 본 리더십

'권력자들' 스티브 포브스·존 프레바스 지음



카이사르 등 역사적 인물들은 어떻게 최고 권력자가 되었을까. '포브스'지의 스티브 포브스 회장과 역사학자 존 프레바스(미국 예코드 대학 교수)가 함께 쓴 '권력자들-3천년을 지배한 통솔력의 비밀'은 한니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알렉산드로스, 크세노폰, 키쿠스 등 고대 세계를 지배한 6명 권력자의 삶과 흥망성쇠를 통해 권력의 본질과 리더십을 조명하고 있다. 저자는 자율과 관용(키쿠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집단을 이끄는 소용돌이(크세노폰), 관습의 틀을 깨는 혁신적 사고(한니발)를 권력의 요체로 설명한다. <이코의 서재·1만9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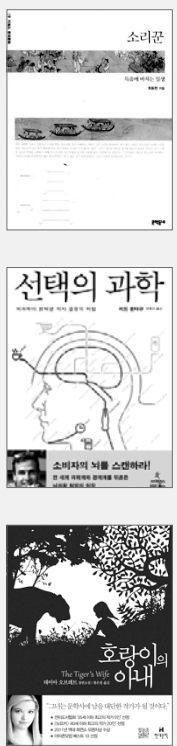
또 세상의 판도를 읽은 전략적 판단(카이사르), 질제와 균형감(아우구스투스), 목표에 집중하는 강력한 카리스마(알렉산드로스)도 언급한다. 저자는 또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를 빠르게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 성공을 거둔 후에도 올바른 전망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추진력, 구성원들이 이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열정,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는 태도, 사람들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느슨하게 풀어줄 때를 아는 뛰어난 용병술 등 리더십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이야기한다. <이코의 서재·1만9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간

▲동화를 어떻게 쓸 것인가=아동문학이 이오덕(1925~2003년) 선생이 동화 쓰기에 관해 남긴 글을 모은 평론집이다. 동화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마음가짐부터 아이들을 위한 문장쓰기까지 선생의 생각을 담았다. 저자는 동화문학을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참모습을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이야기로 쓰는 글'이라고 설명한다. <삼인·1만5000원>

▲착한 미소=지난해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광양 출신 송명진 시인의 유고 시집. 격월간지 '정신과 표현'을 창간했고 한국시인협회 이사로도 활동한 시인은 사물 간의 관계나 존재의 근원을 탐구한 시들을 선보였다. 김남조 시인은 추천사에 "고인의 작품들은 우수 어린 위인과 사랑을 담고 있으며 생의 질곡을 통렬하게 그리면서도 너그럽게 드러내 보인다"고 쓰고 있다. <황금알·8000원>

▲가격은 없다=MIT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논픽션 작가 윌리엄 파운드스톤이 가격의 다양한 속임수를 파헤친다. 저자는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마음 속 욕망을 대중의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이밖에 식당 메뉴와 슈퍼마켓 가격에 숨은 비밀, 할인 쿠폰과 포인트 적립의 속임수 등 일상적인 사례를 통해 가격의 미묘한 심리학을 알기 쉽게 전한다. <동녘사이언스·1만8000원>



▲소리꾼=최동헌 군산대 국문과 교수가 소리꾼을 키워드로 우리 관소리의 정수를 설명했다. 최 교수는 조선 후기의 관소리 이론가 신재효가 관대가 갖춰야할 요건으로 꼽은 인물, 사설, 득음, 너름새를 차례로 들여다본다. 하늘이 준 목소리라 불린 김소희, 근대 문물이 만들어진 명창 일방울, 최초의 여자 소리꾼 진채신, 마지막 대가 박동진 등 여러 소리꾼들의 이야기도 담았다. <문학동네·1만원>

▲선택의 과학=의사결정 연구의 권위자인 리드 문터규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하는지를 뇌과학적으로 설명한 책이다. 그는 우리 뇌의 가치 판단 과정을 fMRI(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장치)로 불리는 장치를 통해 시각화하고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분석했다. 또한 다양한 신경과학 이론과 사례, 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크고 작은 의사결정의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왕성한 뇌 활동을 설명하고 있다. <사이언스북스·2만원>

▲호랑이 아내=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젊은 미국작가 테이아 오브레트(26)의 첫 장편소설. 발간반도를 배경으로 할아버지의 비밀스러운 죽음의 현장을 찾아 나선 소녀의 여정을 통해 삶과 꿈, 사랑과 상실, 죽음과 전생의 이야기를 신비롭게 그려냈다. 동물원 우리를 뛰쳐나온 호랑이를 쫓는 마음사람들, 그 호랑이를 지켜주는 청각장애인 소녀의 얘기 등이 신비한 전설처럼 펼쳐진다. <현대문학·1만3500원>

▲왜 지렁이는 비가 오면 나타날까=아이들이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지렁이를 알기 쉽고 흥미롭게 설명한다. 몸의 구조를 비롯해 자연과 인간의 삶에 깊이 연관돼 있는 지렁이의 역할, 날씨에 따른 반응 등 지렁이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았다. 동시에 생명의 소중함과 공존의 의미도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 <시공주니어·1만500원>

▲무민과 위대한 수염=핀란드의 작가 토베 안손이 만들어 낸 가상의 캐릭터 '무민'을 주인공으로 한 즐거운 동화다. 겁 많은 강아지 수르쿠가 용기를 내, 바닷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다. 무민과 이를 돕는 친구들의 우정을 통해 어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다. <어린이작가정신·9000원>

▲호랑 감투=온 겨레 어린이가 함께 보는 옛 이야기 그림책 여덟 번째 권이다. 경남 언양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재구성했다. 도깨비가 쓰던 호랑 감투를 유령이 얻게 된 영감이 욕심을



품고 나쁜 짓을 일삼다가 끝내 헛웃을 치른다는 내용이다. 장날 풍경과 제삿날 상차림 등 우리 전통 생활 모습도 섬세하게 그렸다. <보리·1만1000원>

▲저리 가! 짜증송아지='펠릭스의 모험' 시리즈를 쓴 작가 아네테 랑겐이 아이들에게 짜증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는 그림책이다. 만사에 자꾸 짜증이 나는 꼬마 '요세피네'는 할머니로부터 "그게 다 어께 위에 올라탄 '짜증송아지' 때문"이라는 말을 듣는다. 아이가 겪는 감정 변화를 해결하는 유쾌하고 건강한 비법을 소개한다. <아름다운사람들·1만원>

▲김점동 조선의 별이 된 최초의 여의사=여성이 학교에 다니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시대에 미국 유학까지 마치고 돌아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뢰봉사와 사회사업에 바친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 이야기이다. 조선 말기 격동의 시대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문물을 배우고, 그것을 배울고 나누고자 한 김점동의 생애가 감동적이다. <청어람이네·9500원>

어린이 책꽂이